현불논단

자기 통제능력을 키워라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온 · 오프라인 넘나드는 초연결사회
가치창출 · 혁신 이뤄져 장점 부각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특징 때문에
이면엔 디스토피아 회의론도 있어

국민 97%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단톡방, 편리하지만 때론 불편해
초연결사회로 인해 느끼는 피로감
인드라망 새겨 디지털 자기관리를

2008년 시장조사기업 가트너(Gartner)는 네트워크, 센서, 데이터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사람, 사물, 공간을 잇는 망이 빨라지고 촘촘해진 새로운 사회 변화를 설명하면서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실로 인류는 지금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고, 사물과 사물, 기기와 사물 같은 무생물 객체끼리도 연결망을 바탕으로 정보를 생성,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에 진입하였다. 새로운 가치창출과 혁신이 가능해지면서 만물과 공간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고, 인간은 무한 연결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초연결 사회는 단지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컴퓨터로 소통하던 이전의 정보화 사회와 달리 초연결 사회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본격적으로 융합한다. 인간 사회의 초연결 상황은 개인에게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와 공동체에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재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최근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살인 사건이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하였다. 피해자를 방문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준비과정이 순전히 온라인으로 이뤄졌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하는 초연결 시대가 아니었더라면 CCTV 증거확보를 통한 검거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미래사회가 초연결로 인해 한순간에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회의론자들의 경고에 다시금 주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7%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전체가 카카오톡이라는 소위 국민 메신저 서비스로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셈이다.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의 단톡방 기능을 소통 · 대화 기능에 이어 두 번째 이용 사유로 밝히고 있지만, 단톡방으로 연결된 상태에 대한 불편한 인식도 드러내고 있다.

메신저와 같은 초연결 기술은 세상의 어느 곳, 어떤 정보에도 거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무한 연결의 시대를 열었지만, 원하지 않는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속박의 시대를 동시에 가져왔다. 직장인 열 명 중 여덟 명은 업무 외 시간에 울리는 메시지 신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다른 이용자들도 다양한 사적, 공적 대화방에서 연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단체 대화방을 떠날 때 제시하던 '단톡방 탈퇴' 안내 문구를 없앤 카카오는 출시 1개월 만에 200만 여 명이 이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밝혔다. '조용한' 단톡방 탈출 행렬은 초연결사회가 초래한 연결의 피로감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는 혼란의 21세기 초연결 사회를 평온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초연결 삶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초연결이 가져오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 사물 할 것 없이 모든 객체가 상호작용하는 초연결 사회의 연결망은 불교의 법망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일체가 법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만물만생이 상대적 의존관계 속에서 돌아가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인과로 이어진다는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인과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불교의 원리는 초연결 사회가 개개인의 책임과 윤리의식에 기반을 둔 디지털 자기관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개인과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초연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기 통제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포도주와 불교

6월에는 햇빛이 갓 열린 포도송이마다 매섭게 침을 쏘아댄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서 만난 포도나무들은 그 난폭한 빛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해안 절벽에 뿌리내린 것도 아슬아슬한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맹렬하게 쏟아붓는 햇빛을 어찌 견딜 것인가. 그만 앉은뱅이가 된 포도나무. 하지만 해가 진 후 카페에서 마시는 포도주 맛이란.

시인들은 포도주를 식물의 피라고 노래한다. 포도주는 포도나무의 붉은 피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를 동물성 포도주라고 했다. 포도주가 다른 식물로 만든 술보다 인간의 체질에 맞기 때문일까. 잘 빚어진 포도주는 습하고 차가운 몸은 데워주고, 덥고 건조한 몸의 열은 내려준다. 그래서 예전에는 포도주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포도주는 인간의 몸을 유익하게 해주어 생명의 원천인 붉은 피처럼 생각했나 보다. 아무튼 인간은 포도주를 모든 술 중에서 으뜸으로 여겨 높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좋은 포도주를 구입하고자 한다.

포도주는 포도 열매라는 질료 안에서 자기 스스로 발효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했는지도 모른다. 포도알의 불순물만 제거하고 그릇 속에 넣어 밀봉하면 어디에서나 발효한다. 발효할 때는 탄산가스가 나와 끓어오르기 때문에 모든 균은 죽어 순수하고 감미로운 포도주가 생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주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변치 않고 제 맛과 향기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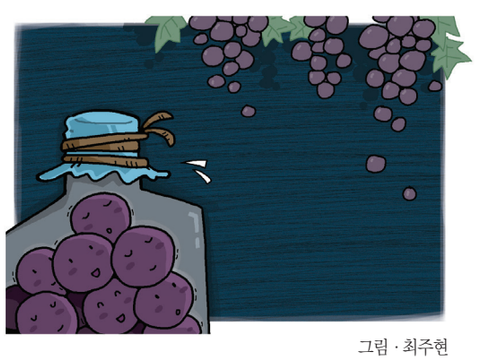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포도 열매가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발효의 과정, 이것이 우리 중생(衆生)의 삶이 아닐까? 인간의 발효는 거짓된 나를 벗고 참 나로 변화하여 나아가는 것이리라. 포도가 발효될 때 탄산가스가 나오듯, 인간이 발효할 때는 탐진치(貪瞋癡)가 드러난다. 교만, 집착, 허영의 에고 덩어리가 떠오른다. 나라고 믿었던 내 존재마저도 인연의 조건에 따라 생성되고 소멸되는 거짓 나임이 밝혀진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발효이다.

발효하는 비결은 오직 밀봉뿐이다. 밀봉이란 지금까지 세상만을 바라봤던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나는 무엇인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썩어질 생명이 썩지 않을 생명이 되도록 끈질기게 공부하는 것이다. 밀봉의 비밀은 몰입에 있다.

밀봉하여 발효되면 무색투명한 포도주가 된다. 포도 알맹이가 으깨어져 포도주가 생성되듯, 내 마음도 오욕을 씻어내면 본래의 불성(佛性)을 드러내리라.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불법(佛法)이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생명의 감로주가 아닌가.

〈작가〉

社 說

월운당 해룡 대강백 원적에 부쳐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당 해룡 대강백이 지난 6월 16일 오후 10시 36분 원적에 들었다. 월운 스님은 이 시대를 대표한 대강백이자 화엄종주였고, 한글 대장경 불사에 앞장서 불자들이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역경보살' 이었다. 또한, 1973년 전국 최초로 어린이 숲속학교를 개설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섰던 부루나존자의 후예이기도 했다.

이 같은 대강백의 원력은 교계 안팎에서 후학들의 존경을 받았다. 월운 대강백은 2001년 한글대장경 완간에 따른 조계종 종정예하의 공로상을 시작으로 △한글학회 외솔상(2001) △조계종 포교대상(2003) △대통령 은관문화훈장(2005)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2005)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해인승가상 대상(2014) 등을 수상했다.

남기신 임종게인 '사승비승사속비속 허두장로월운영가(似僧非僧似俗非俗 虛頭長老月雲靈駕, 중 같지만 중도 아니고/ 속인 같지만 속인도 아닌/ 헛소리하는 늙은이/ 월운 영가)' 도 대강백의 면면을 잘 느끼게 해준다. 이는 수십 년 전 티베트 순례 당시 "순례 중 기절하면 부처님 나라에서 장사 지내달라"라면서 작성한 게송이다.

6월 21일 엄수된 월운 대강백의 영결 · 다비식에는 폭우 예보에도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운집해 대강백을 추모했고, 봉선사에 이르는 길목 곳곳마다 봉선사 신도단체와 지자체장, 지역불교계, 마을 주민 등의 추모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대강백을 그리는 대중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월운 대강백은 종단의 3대 목표인 교육, 포교, 역경불사에 평생을 바친 선지식이었다. 이제 후학들은 대강백의 유지를 이어 한국불교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홍준표 시장, 불교계 면담 나서야

대구시가 대구시립합창단 공연을 앞두고 종교편향적 음악 리스트 논란이 일자 4월 27일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 의사를 밝힌 지 두 달이 지났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자문위가 자문을 넘어 구속력 있는 의결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자문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시립합창단의 기독교 편향 공연 사태를 계기로 종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문위를 설치해 시행한지 1년 반도 되지 않은 셈이다.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를 침해했다는 홍 시장의 발언이 단순히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대로 다종교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종교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지 의문이다.

자문위는 그동안 노골적인 종교편향 공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공공영역에서 진행되는 합창단의 선교행위를 막고 종교간 화합을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대구시립합창단의 종교편향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고, 대구시가 조례를 개정해 자문위 역할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자문위 활동을 '사전검열' 이라고 폄하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먼저 조례를 손보는 것이 순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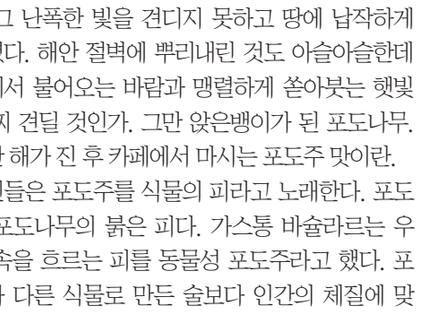
불교계는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에 이어 김종한 행정부시장과 만나 홍준표 시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홍 시장이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면 불교계의 면담 요청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극단적인 결정은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다. 지금은 자문위가 왜 탄생했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면 천막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불교계에 홍 시장이 응답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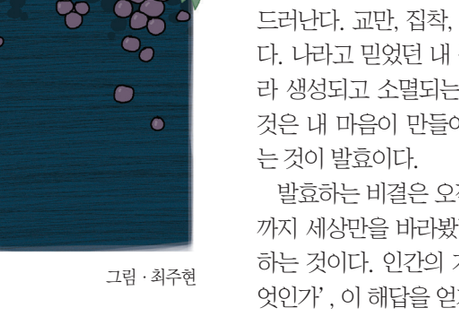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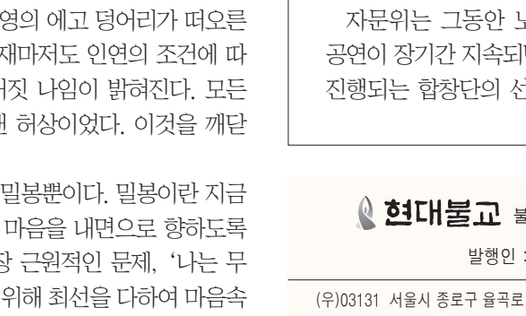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